



잊지 못할 배움 그리고 추억

김경미_ 뷰티코디네이션학부



현장 실습을 신청하여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전염병 ‘코로나 19’ 때문에 사회 분위기 그리고 경제가 침체됨으로써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건강에 대한 위험 또한 컸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현장실습을 서울로 가고 싶었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더욱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대학 생활 중 딱 한 번뿐인 현장실습 체험 기회이며, 취업하기에 앞서 무지한 상태보단 실습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현장실습 체험을 함으로써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성장 할 수 있는 큰 원동력과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과 의 얘기 끝에 현장실습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서울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겸임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려 조언과 실습에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드렸다. 처음 연락을 드렸을 땐 교수님들께서 걱정어린 말씀들을 하셨지만 나의 확고하고 굳은 의지를 말씀드리니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덕분에 원하던 서울 현장실습을 갈 수 있게 되었고 7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에서의 현장실습이 시작되었다.

서울로 현장실습을 갈 업체가 정해진 후 올라가기 전 교수님께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현장 일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서울에 올라간 후 처음으로 실장님을 뵈었을 때 실장님께서도 일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일이 줄어들자 얼마나 줄었겠는가 하는 내 생각과는 달리 실습 일정이 그렇게 많진 않았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된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 첫 실습 현장



▼ 운동센터 홍보 영상 촬영 현장



▼ 헤어 보조 하는 모습



그래도 그토록 원하던 서울에서의 현장실습이었기에 이 현재 상황에서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신 없을 좋은 기회라 생각했고 더욱 열심히 실습에 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그래서 이번 짧은 4주 동안의 현장실습을 통해 기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분위기, 어떤 시스템으로 현장이 돌아가는 것인지 등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것들을 다양하게 배우는 것과 샵이 아닌 스튜디오 현장 일의 나의 성향과 잘 맞는지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습 첫 출근날을 떠올려보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첫 현장 출근이라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던 것과 실장님을 처음 뵈는 날이라 긴장을 많이 하여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흥건했던 것, 첫 현장에 들어서서 실장님을 보조하며 일을 했던 기억, 현장 일정이 끝나고 퇴근할 때의 그 미묘한 감정, 흥분하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기쁨. 사실상 첫 출근이었기에 제대로 한 것은 없었지만 마냥 내가 하고 싶었고 동경해왔던 일을 직접 했다는 것과 첫 퇴근을 할 때 실장님께서 해주신 정말 감사한 칭찬들 덕분에 마음 가득 차올랐던 행복하고 기쁜 감정들...

지금 이 수기를 적으며 기억을 되살려보니 수많은 현장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 특히 뚜렷하게 기억나는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들에 대해 조금 적어볼까 한다.

첫 번째는 당연지사 앞서 말했던 첫 출근한 현장으로, 강의 광고 현장이었다. 여성 강사 출연자 한 분께 헤어 메이크업을 해 드리는 것이었는데, 첫 현장이다 보니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단 출연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반응해 드리며 대화를 이어나감으로써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실장님이 다음 시술에서 필요로 하시는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 건네드리는 등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출연자분께선 ‘말을 너무 예쁘게 한다’는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고 실장님 또한 퇴근할 때 ‘이렇게만 하면 된다’, ‘첫날인데 너무 잘했다’ 등의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다. 사실 첫 출근날은 ‘내가 잘 할 것이다’보단 ‘실장님께 피해 혹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터라 뜻밖의 칭찬들이 정말 감사했고 따뜻한 감정들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덕분에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

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첫 현장이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뚜렷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어서 두 번째는 운동 센터 홍보용 영상에 쓰일 강사님들 촬영으로, 실습 일정 중 단시간에 가장 많은 분들께 헤어 메이크업을 시술해 드린 현장이다. 여성 강사님 대략 일곱 분들께 4시간 안에 헤어 메이크업을 마무리 했었던 일정이라 다른 일정보다 훨씬 힘이 들었고 현장 속에선 쉴 틈 없이 시간이 빠르게 흘렀던 것 같다. 그렇지만 많이 경험 해 보는 것이 많이 배우는 것이라고, 확실히 이 전보다 상황판단 능력과 실력 등이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을 느꼈으며 기술면에서도 정말 많은 배움을 얻었다. 또한 앞서 말했듯 현장이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 퇴근할 때 몸이 지쳤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현장을 돌아켜보니 ‘몸은 힘들었지만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즐거웠고 재미있었다.’, ‘이런 현장 일정이 다음에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으로 하여금 현장 일을 하는 것은 내 성향과 잘 맞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이 방향으로 취업을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어 취업의 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고 느껴 뿌듯함과 더불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 뜻깊은 현장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뚜렷하게 기억나는 현장으로 방송국 일정이다. 물론 방송국 현장이라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지만, 단지 이 이유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선 실장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있어 도움이 될 좋은 말씀들과 빠있는 조언들을 해주셨으며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기에 특별히 나에겐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 현장은 방송국 유튜브에 업로드 될 콘텐츠 촬영 현장이었는데, 처음 촬영 들어가기 전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중간 중간 수정 과정 없이 진행되는 현장이었다. 그래서 출연자 분들께서 촬영에 들어가시고 끝날 때까지 분장실에서 잠시 쉴 수 있었다. 쉴

▼ 방송국 현장 내부



수 있다는 것은 좋았으나 사실 현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 실장님과 항상 간단한 대화만 나뉘본 것뿐이었으며 좋으신 분이지만 어찌됐건 나의 상사이시기에 그 시간동안 분장실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겐 살짝 어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장님께서 실습이 괜찮은지 힘들진 않는지 혹시 궁금한 것은 없는지 먼저 선뜻 대화를 걸어주셔서 처음의 그 어색함은 눈 녹듯이 말끔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한 마음만 가득 차올랐다. 짧은 쉬는 시간 동안 실장님께선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할 땐 최선을 다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으며 미래에 관한 고민과 걱정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그리고 빠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다. 사실 지금까지 교수님들 제외하고선 조언을 들을 수도 질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정말 좋으신 실장님과 소중한 인연이 되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4주, 다른 누구에게도 정말 긴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현장실습을 하는 4주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으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정말 아쉬웠다. 여건이

▼ 방송국 촬영 현장



됐었으면 방학이 끝날때까지 실습을 하고싶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2주간의 자가격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정해진 4주만 하고 대구에 내려오게 되었다.

실습을 마치고 내려온 후 가족들 혹은 지인들이 현장 실습에 대해 물어보면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실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였다는 말과 함께 정말 실습을 안 갔으면 혹은 못 갔으면 후회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무조건 체험하는 것을 추천할 것이다.

지금까지 적은 것을 쭉 읽어보니 긍정적인 것들만 적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항상 마냥 재미있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힘든 일도 있고 때론 너무 지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배움의 일부분이며 그만큼 더 값진 배움이 있기에 이러한 경험은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성장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적은 이번 현장실습 목표는 모두 이루어지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그 중 뼈저리게 몸소 느낀 것이 딱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부모님 그늘 곁에서 생활할 때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 서울에서 짧은 4주 동안이었지만 홀로 생

활하다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했었기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때 평소에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되새길 수 있었고, 꼭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기회는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서울로 실습을 가기 위해 교수님들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과연 원하던 서울로 현장실습을 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아마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삶에 있어 적지 않은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이번 현장 실습 또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 한층 성장하였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이 현장실습 체험 수기 자리를 빌려 서울 현장실습을 갈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값진 시간을 선물해 주신 실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